

지역 **메아리**

완주지역아동극축제 공연 '호응'

완주군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2017 지역아동극축제 공연을 열어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12일, 13일 2회로 진행된 지역아동극축제 공연은 현대자동차 후원,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주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문예회관에서 완주군을 비롯해 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완주문예회관에서는 극단비유의 '솔근슬근 툇잡이야'가 공연됐다.

이 작품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편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요정들과 흥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동심 속에서 교훈을 얻는 내용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이서면, 일일주점 행사 열어

완주군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대석, 주영환)가 지역공동체 회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일일주점 행사를 열어,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13일 이서면에 따르면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서면 지사울공원 일대에서 협의체 위원, 봉사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주점을 열었다.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한편, 이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복지지원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나눔생장도, 공부방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농업인의 날 협의회 가져

김제시는 오는 11월 10일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업인단체·각 읍면동 임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금년 개최되는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단체연합 주관으로 추진되며 이에 맞춰,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단체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공리에 행사가 개최되기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차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임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우수농업인(19명) 시상, 농업인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명랑운동회, 장기지팡, 축하공연이 열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새정부 정책방향 '발맞춰'

군, 미래발전 정책 포럼 개최... 지역재생·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모색

완주군이 새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로컬푸드 정책과 더불어 2단계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면서 지역재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략을 공고히 했다.

지난 13일 완주군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미래발전 정책 포럼은 한국자치행정학회와 완주군 공동 주관으로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지방정부 발전방향'의 주제 아래 학계, 지역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두 가지 지역발전 전략, 정부주도 발전정책에 대한 쟁점,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현장실천가, 학계,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돼 완주군의 정책

특히 지역 경제·인구위기에 따른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환경생태 위기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통합적 접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고용안정, 복지증진, 혁신역량 증진을 위한 포용국가 전략 등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변창훈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역의 발전'을 주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배경과 방향까지, 주요 쟁점,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재생 발전방향을 논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두 가지 지역발전 전략, 정부주도 발전정책에 대한 쟁점,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 사회적경제 정책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현장실천가, 학계,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돼 완주군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테이블 토론에 참석한 정선철 서울특별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재생은 주민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주군은 공동체, CB, 재래시장, 구도심 등 현 실태를 반영한 '완주형 지역재생' 전략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그동안 완주군이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기존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혁신 도시가 임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지역재생의 선봉적인 혁신 사례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강점을 살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업 미래 열다... 김제 농기계박람회 개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벽골제 일원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철단 농업의 장(場)',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 김제 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이 같은 뜨거운 호응을 반영하듯 2015년 보다 12개 업체가 더 신청하여 48개 부스가 늘어 난 192개 업체 (390개 기종), 총 429개 전시부스가 모두 조기 마감되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농업

기계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김제 농업기계박람회는 2만 5,620㎡ 면적에 수도작·전작 기계, 수확 및 농산물 가공기계, 포장 기계, 축산 기계, 입입 기계, 과수용 기계, 시설·화재 기계, 부품 및 바이오, 기타 농자재 등이 전시된다.

또 부대행사로는 농기계 학습실포지엄과 김제시 우수농특산물 홍보관 및 관광 홍보관, 기업유치 홍보관, 귀농 귀촌 홍보관, 먹거리장터 등이 열린다. 특히 2015년 박람회 당시 참관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전국 유일의 농기계 연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계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김제 농업기계박람회는 2만 5,620㎡ 면적에 수도작·전작 기계, 수확 및 농산물 가공기계, 포장 기계, 축산 기계, 입입 기계, 과수용 기계, 시설·화재 기계, 부품 및 바이오, 기타 농자재 등이 전시된다.

또 부대행사로는 농기계 학습실포지엄과 김제시 우수농특산물 홍보관 및 관광 홍보관, 기업유치 홍보관, 귀농 귀촌 홍보관, 먹거리장터 등이 열린다. 특히 2015년 박람회 당시 참관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었던 전국 유일의 농기계 연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 사업 '선정'

완주군이 도지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도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2018~2019년(2년)까지 총사업비 10억(국비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잡곡생산 및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해 웰빙 농산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친환경 흑미, 콩, 수수, 기장, 차조, 귀리 등의 잡곡 21ha를 재배해 152톤을 생산 유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잡곡생산은 지역 내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이뤄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출하됐지만 수도권 등

학교급식납품이 증가함에 따라 잡곡 수요가 늘어났다.

완주군은 잡곡생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잡곡생산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 생력화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과 집하선별장 및 가공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친환경 잡곡 인증면적을 100여 농가 70ha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성덕 사랑방 북카페 '호응'

문학류·교양류·아동 도서 등 400여권 비치

김제시 성덕면사무소(면장 신형순)가 최근 민원실 옆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성덕 사랑방 북카페'를 개설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말 개설된 '북카페'에는 문학류, 교양류, 아동도서 등 일반 도서 4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탁자와 의자, 음료대, 꽃나무 등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은 물론 사회단체 회원, 성덕초등학교 학생 등 일일 20여명의 주민과 면직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성덕면에서는 지난 8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민원대기실을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여 나무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라는 천연성분물질로 향균과 살균이 되는 쾌적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주민을 위

한 열린공간으로 꾸몄다.

또 직원·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00여권의 도서를 마련하였고 국민책나눔센터 도서를 신청하여 200권을 기증 받고 시립도서관에서 100권을 기증해주어 북카페 개설이 가능했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북카페 개설을 준비하며 도서를 마련하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주민의 정성과 국민책나눔센터, 시립도서관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마을 회관이나 모정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모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각한다"며 책 읽는 분위기 확산 등 면 행정 의지를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서귀포시 중앙동, 상생 '우의 다져'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이 주민자치 자매결연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과 상호 교류 방문으로 주민자치의 상생 발전의 우의를 다졌다.

지난 12일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자매결연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삼일) 20여명이 백구면 사무소를 방문,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과 함께 김제시와 백구면의 현황 보고를 받은후 김제시의 자랑거리인 죽산면 아리랑문화마을 투어를 통해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두 기관은 주민자치 활동 및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정보 교류와 더불어 갈금, 지평산쌀 등의 농특산물 판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한 계

회와 논의가 이뤄졌다.

조은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앙동 위원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양화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상호 교류 방문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견인하는 단초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멘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음극지치 오인 지역중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휘트	